임실 옥정호 관광단지 '극찬'

전북 국정감사서 동부권 성공모델 사업 "대한민국 가장 좋은 곳" 호평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옥정호가 국정감사에서 대박 관광지로 소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옥정호가 국정감사에서 대박 관광지로 소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김관영 도지사에게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평가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임실 옥정호 관광단지를 크게 호평,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모습과 붕어섬 생태공원에 활짝 핀 꽃, 아름다운 경관 등이 담긴 PPT 자료를 내보이며 "옥정호 관광단지가 대박이다. 개장한 지 2년만에 132만명이 방문하는 대박을 터뜨렸다"며 "굉장한 좋은 정책으로 임실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리는 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해 경직된 국감장 분위기를 순간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좋은 곳이다. 꼭 한번 다녀와 보시라"고 방문을 권유하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정현 의원이 "나도 한번 가봤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옥정호를 광역단체의 특별한 정책과 기초단체의 노력이 병행되어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로 소개하며, 동부권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타지역 국회의원이 임실군 옥정호 관광단지를 언급하면서 임실군의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은 기초단체의 좋은 정책으로 주목을 끌었다.

3선 군수인 심 민 군수의 역작인 옥정호 생태관광개발사업은 취임 초인 지난 2015년부터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옥정호 권역을 생태·체험형 관광지로 조성, 크게 빛을 보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운암면 일원에 추진한 '옥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 및 보완사업'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심 민 군수는 "국정감사에서 성공적인 관광사업으로 소개되어, 지난 11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감회가 남다르다"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동부권 발전사업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인정받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관광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 성과

남원시, 탄소중립 실천 · 행정 효율성 극대화

남원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격적으로 추진해 온 '종이 없는(paperless) 스마트 회의시스템'이 탄소중립 실천과 행정 효율성 극대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며 미래형 스마트 선진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실제로 남원시는 지난 2년 동안 종이 문서 위주 회의방식을 탈피하여 테블릿 PC를 활용, 매달 평균 20회 정도의 각종 회의 및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트 회의시스템에 공유하고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확인, 논의 내용을 디지털로 즉시 기록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 체계 구축이 가능해, 종이 자료 준비 소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감소시켰다.

또한 종이 사용 감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 행정 실현에 기여, 탄소연감 네트워크 2022에 따르면 A4 용지 한 장을 줄일 때 약 24.48g(생산 2.88g + 인쇄 21.6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고, 노트북 1시간 사용시 종이 1장 인쇄를 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량을 1/30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남원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태블릿PC 80대를 구입해 전 부서에 배부했으며, 종이 없는 회의 본격 시행하는 등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 회의 운영은 단순한 회의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남원시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 표명이자 스마트 행정도입의 디지털 혁신 사례"라며, "시는 앞으로도 페이퍼리스 행정 정착 이외에도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관리 '농뷰'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남원시

남원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분 2,113필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과 민원과(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해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12월 2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42~61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임실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900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우편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기타 토지 관련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만큼 군민들께서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옥광밤 · 눈꽃복숭아 홍보

군,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서 판촉행사 가져

순창군은 30일 서울 양재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순창 옥광밤·눈꽃복숭아' 홍보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품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이 후원하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조합장, 농협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순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판촉 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장에서는 옥광밤과 눈꽃복숭아를 활용한 시식 행사가 진행되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복숭아와 달밤떡, 건고추, 생강 등으로 구성된 '순창의 맛' 패키지가 방문객들에게 증정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행사장에는 순창 농산물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과 X배너가 설치되어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으며, 현장 시식과 설명을 통해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순창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청년마루 성과공유회 & 청년네트워킹 데이 개최

남원시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청년마루'의 한 해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2025 남원 청년마루 성과공유회 & 청년네트워킹 데이를 오는 11월 1일 남원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원 청년마루를 중심으로 추진된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협력의 기회를 만드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청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남원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주제로 열린 축제가 진행된다.

행사는 △청년마루 성과보고 △청년기업 우수사례 발표 △청년기업 제품전시 △원데이클래스 등 체험부스 운영 △청년공감 토크콘서트(게스트: 래퍼 행주) △청년예술 공연 △청년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장 참여 이벤트와 포토존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 공감 콘서트에는 쇼미더머니6 우승자인 래퍼 행주가 출연해 도전과 전환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 순창경찰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실시

순창군과 순창경찰서는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순창군과 경찰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군의 체납자료와 경찰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속도위반 등 기타 과태료 체납 차량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주차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며, 필요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소방서,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순창소방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행위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라며,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험물의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장소 내 흡연 금지 △관계인의 금연표지 설치 의무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연표지 미설치 시 지정 명령 등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금지 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